

사자성어로 본 신묘년

신묘년 한해가 밝았다. 아쉬웠던 1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 항상 아쉬움은 남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낮기를 바라며 목표를 세워보자. 노력은 행운을 부르는 법, 모든 이가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 새해 소망을 사자성어로 담아본다.

견성이갑 <堅城利甲>

적과 싸워 이길만한 만반의 준비

정치 2011년은 정치권에 중요한 한 해이다. 4월 27일 제·보궐선거를 제외하고 큰 선거는 없지만, 1년 뒤인 2012년에는 가장 중요한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 선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역 국회의원들과 유력 정치인들은 벌써 4월 총선 준비에 돌입한 상태고, 일부 입지자들은 서서히 물밑 작업을 벌이며 꿀꺽거리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수성(守城)'을 위한 총력전을, 이에 도전하는 입지자들은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며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입장이어서 신묘년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또한, 여당은 2012년 총선 승리와 함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야당은 아권통합 등을 통한 정권교체에 온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1년 신묘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2012년 정치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올해 정치권의 움직임에 딱 맞는 사자성어가 '견성이갑(堅城利甲)'이다. '견성이갑'은 방비가 튼튼한 성과 훌륭한 갑옷이란 뜻으로, 적과 싸워 이길만한 만반의 준비를 이르는 말이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여당은 야당의 공격을 철저히 막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고, 야당은 정권교체를 위한 총력전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민심은 정치적 비전·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원하고 있는 만큼 현역 국회의원들은 도전자들과 싸워 이길만한 준비를 해야하고, 도전자들은 현역을 꺾을 수 있는 비전과 리더십을 갖추는 등 올 한해 바빠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교토삼굴 <狡兔三窟>

피많은 토끼 위험 대비 굴 3개 마련

경제 '거안사위(居安思危)'와 '교토삼굴(狡兔三窟)' 자세가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안사위(居安思危)'란 평안할 때에도 위험과 곤란이 닥칠 것을 생각하며 잊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한다는 뜻이며, '교토삼굴(狡兔三窟)'은 피 많은 토끼가 위험을 대비해 굴을 3개나 준비한다는 말이다.

지난해는 각종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며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5% 안팎으로 보며 잠깐의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민간 연구소들은 3.8~4% 초반대로 전망치를 낮게 잡고 있다. 또 유럽의 재정위기는 여전히 세계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잠재해 있고, 중국의 급리인상에 따른 수출 감소, 연평도 포격이후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회복기의 한국 경제를 위협할 만한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이같은 위기와 위험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가까스로 회복된 경제가 다시 빨간불을 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경제도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각종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냉랭했다. 신묘년에는 경제지표의 상승도 중요하지만 '내실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올해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함께 미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3년1개월 만에 2000선을 돌파하며 기록경신을 거듭하고 있는 중시도 '코스피 2000시대 안착'을 위해서는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3가지 굴을 준비하는 '교토삼굴'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2011년 신묘년(辛卯年) 담양군 남면 반석마을 박찬식씨의 농장에서 토끼 가족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유암화명 <柳暗花明>

암울한 상황에서 재기와 희망 싹트다

사회 2011년 한해는 대립과 갈등이 줄어들고, 점차 불안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은 국가적으로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 등으로 남북 관계가 급격히 경색됐다. 지역적으로는 지방선거 이후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의 교체로 인해 화합보다는 분쟁과 갈등이 컸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국내 정세와 이해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지역의 분위기 탓에 광주·전남지역민들은 희망보다는 가히 환란과 실의에 빠진 1년을 보냈다.

지역 사회 활동가와 원로, 교수들은 2011년 한 해가 지난해의 혼란스럽고 대립적인 양상을 탈피, 한층 밝고 희망이 깃든 소식이 많기를 바랐다. 이들이 새로운 한해를 기원하며 택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유암화명(柳暗花明)'이다.

'유암화명'의 원래 의미는 버드나무는 울창해 어두컴컴하고, 꽃은 밝게 핀다는 뜻으로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이르는 말이다. 지금에 와서는 발전의 여지가 없는 보이는 암울한 상황에서 재기와 희망이 트이는 것을 가리킨다.

지역 인사들은 "지난해에는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가 긴장돼 국민이 불안해했다"면서 "지역에서도 전국지방선거이후 각종 정책들이 급변하면서 화합보다는 갈등구조가 컸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서로서로 한발씩 양보하면 상생하는 신묘년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일명경인 <一鳴驚人>

일 벌이면 세상이 놀랄 성공 거뒀다

문화 올해 광주지역 문화계는 광주문화재단의 출범과 광주시립미술관장 선임 등 대대적인 자청도의 변화가 예정돼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문화수도 광주의 크고작은 문화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될 대표 기구다. 또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한 광주시립미술관장에 대한 기대도 높다.

올해는 에디터러 국제 축제 교류 사업이 신설되고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후기인상과 결자전 등 대규모 미술 기획도 출몰이 있다. 월드뮤직 페스티벌, 3D 영화제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광주가 아시아중심도시로 거듭나는 희망찬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희망과 기대의 뜻이 담겨있는 '일명경인(一鳴驚人)'을 올 문화계 사자성어로 뽑았다.

'일명경인'은 '새가 한 번 울면 사람을 놀래킨다'는 뜻으로 일을 벌이면 세상이 놀랄 정도의 성공을 거뒀어야 한다는 의미다.

새로 출범한 광주문화재단이 지역 문화 발전을 이끌고,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광주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또 인맥에 얽매이지 않고 더욱 많은 문화인들에게 '새 울음'이 전달되도록 구태에서 벗어나 열린 행정을 펴야 한다는 기대도 포함된 단어다.

광주문화재단이 몇몇 인사들의 장단에 맞춰 지지귀는 새장 안 울음이 아닌, 세계 문화계의 지축을 뒤흔들 정도의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만날수록 힘이되고,
웃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역과 함께한 39년 -
대한저축은행은
어려울수록 지역경제의 힘이 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대한저축은행 임직원 일동

- ▶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대출 '햇살론'
- ▶ 최대 100%까지, 연5.7%부터 '0%파트담대출'

대한저축은행에서 모십니다.